【자료소개】

# 중국 동북지역 연구 자료*
## -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안치영** · 허혜윤***

차 례

1. 서언
2. 중국의 당안 자료
3. 사서와 지방지 및 총서류
4. 만철자료와 만주국 관련 자료
5. 조사보고와 기행 자료 및 기타
6. 데이터베이스
7. 결어

## 1. 서언

만주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던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근대시기에는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게다가 우리와 접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만주사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만주학회로 확대 재편된 것이 각각

* 이 논문(저서)은 200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 허혜윤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 연구교수

www.kci.go.kr

1998년과 2001년의 일이다. 또한 역사침탈 문제로 우리의 주목을 받은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기실 중국에서 동북지역 또는 '변강' 지역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1)]

동북지역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서 가장 큰 장애는 자료에 대한 접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료가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당안관, 특히, 동북지역의 당안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2)]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더불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위한 자료의 정리와 공간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동북지역 연구와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자료는 만철자료이다. 만철자료는 동북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활동이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동북지역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조와 민국시기 관방의 당안 자료나 지방지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통사나 필기자료 등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시기 발행되기 시작한 신문이나 잡지 등도 중요한 자료이며, 그 시기 여러 가지 이유로 동북지역을 방문한 러시아인이나 일본인 또는 구미인들에 의하여 남겨진 조사 보고나 여행기들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 중 가장 일찍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 만철자료이다. 만철자료

---

1)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은 명말청초와 일본의 만주침략 이후인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동북공정 이후라고 본다(중국에서의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와 자료 정리 현황에 대하여는 李治亭, 2001,「東北地方史研究的回顧與展望」『中國邊疆史地研究』 2001年 12月; 張公政, 2013,「17-21世紀東北邊疆史學研究述評」『黑龍江民族叢刊』 2013年 3期; 李治亭, 2009,「東北地方史研究的回顧與思考: 寫在建國60周年」『雲南師範大學學報』 2009年 3月; 孫宏年, 2009,「中國邊疆與周邊地區關係史研究60年」『中國邊疆史地研究』 2009年 9月; 劉信君, 2008,「改革開放三十年中國東北地方史研究述評」『社會科學前線』 2008年 8期 등 참조).

2) 중국의 당안관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는 윤휘탁, 2009,「중국의 당안자료 소장현황과 수집의 문제점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를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60호 참조.

www.kci.go.kr

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정리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많은 자료가 정리 영인되고 있다. 또한 동북공정을 전후한 시점부터 중국에서 접경지역인 소위 '변강' 지역에 대한 자료를 대대적으로 정리 공간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북지역에 대한 자료도 동북지역자료 또는 변강 자료의 일부로 대대적으로 공간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은 소량이 출간될[3]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4] 이들 자료는 동북지역에 관한 당안 자료와 지방지뿐만 아니라 전통 역사서 절록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중국 전역에 관한 특정 주제별 자료집도 동북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집들도 동북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들도 동북지역 연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구미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이나 문서보관소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에는 중국관련 부분을 포함하는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과 접근이 어려운 구미에 보관 중인 중국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1)중국의 당안 자료, 2)사서와 지방지 및 총서류, 3)만철자료와 만주국자료 4)조사 보고와 기행 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 5)데이터베이스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동북지역은 청대와 민국시기에 걸쳐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위치로 재구성되었기

3) 이후 소개하는 자료 중 만철자료의 경우 비교적 많이 인쇄되지만 다른 자료들은 불과 수집질만 인쇄된다. 예컨대, 遼寧省檔案館 編, 1999,『滿鐵與侵華日軍』廣西師範大學出版社)의 경우 200질로 비교적 많이 인쇄되었지만, 石光明 編, 2003,『清代邊疆史料抄稿本彙編』(線裝書局)의 경우 80질, 그리고 天龍長城文化藝術公司 編, 2004,『中國邊疆史志集成』(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의 경우 불과 30질만 인쇄되었다.

4) 일반적으로 영인 출판하는 자료집은 출판사의 명의만 빌려 인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고적 서점을 제외한 일반적인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다. 또한 고가로 한정 부수만 영인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에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www.kci.go.kr

때문에 본고에서는 동북지역에 대한 자료를 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각 자료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공간된 대표적인 자료집을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자료집에 수록된 구체적인 문헌의 목록은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다.[5)]

## 2. 중국의 당안 자료

당안은 우리의 기록물에 해당하며, 중국에서 당안 자료는 우리의 기록물 보관소에 해당하는 당안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일컫는데, 그것을 정리하여 출판한 자료도 당안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기록물인 당안에 대한 관리와 보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중국공산당 관련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베이징의 중앙당안관, 명청시대의 자료를 보관하는 베이징의 제1역사 당안관과 국민정부 관련 당안을 주로 보관하는 난징의 제2역사당안관 등 국가급 당안관 외에도 각 기관과 지방의 각급 정부에는 각각의 관련 기록을 정리 보관하는 당안관이 있다. 그러한 당안 자료는 관련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며, 동북 지역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동북지역에는 각 성, 시, 주(自治州), 현 당안관이 있다.

동북 지방 관련 당안으로는 청대의 지방 군정조직의 당안, 민국시기 당안, 그리고 만철 관련 당안과 만주국 관련 당안 등이 있다.[6)] 청조의 발원지인 동북지방에는 장군(將軍), 도통(都統), 부도통(副都統) 등의 군정 합일의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한 기구들은 많은 당안자료를 남기고 있다. 그러한 당안들은 주로 동북 지역 당안관에 정리 보관되고 있지만, 청조의 발원지가 만주지역인 관계로 제1역사당안관에도 많은 자료가 있다. 그런데

5) 각 자료집에는 보통 수백 종 이상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할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자료 안내를 위한 목록집이 필요하다.
6) 당안 자료 중 만철과 만주국 관련 자료는 따로 소개하도록 한다.

www.kci.go.kr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당안관에 보존된 당안자료에 대하여는 열람과 이용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 동북지역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동북지역의 당안관을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안관에 보관된 당안 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것 보다는 공간된 당안 자료를 파악하여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지역에 관한 당안 자료는 1980년대 이후 청대사연구나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관련 자료 정리의 일환으로 정리 출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만철 자료와 민국시기 군벌 관련 자료들도 정리 출판되었다. 2000년대 이후 동북공정을 시발로 하는 변강연구와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리 공간되고 있다. 당안 자료의 출판은 정리 분류 또는 절록하여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대 초기의 당안은 대부분이 滿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역하여 출간되는 경우가 많다.

『清代吉林檔案史料選編(吉林省檔案館, 1981~1993), 『三姓副都統衙門滿文檔譯編』(遼沈書社, 1984); 『盛京刑部原檔』(群衆出版社, 1984); 『清擁正朝鑲紅旗檔』(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清代黑龍江將軍衙門檔案選編』(2책)(黑龍江人民出版社, 1985), 『清代黑龍江歷史檔案選編』(黑龍江人民出版社, 1988), 『盛京滿文舊檔』(清代檔案資料叢編 4권)(遼寧民族出版社, 1989), 『盛京內務部糧莊檔案彙編』(上,下)(遼沈書社, 1993), 『清代東北阿城漢文檔案選編』(中華書局, 1994), 『清代三姓副都統衙門滿漢文檔案選編』(遼寧古籍出版社, 1995) 등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청대사 연구와 관련하여 정리 출판된 동북관련 당안자료들이다. 이중 상당수는 만문자료를 한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과 관련한 당안 자료를 中華書局에서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으로 정리 출판하였는데, 『9.18事變』; 『細菌戰與毒氣戰』; 『東北大討伐』; 『東北歷次大慘案』; 『東北經濟掠奪』 등이 동북관련 내용이다.

이후 1990년대부터 민국시기와 만철과 만주국 관련 자료를 정리 출판하

www.kci.go.kr

였다. 만철이나 만주국 관련 자료를 제외하면 대표적인 것이 만주군벌에 관련 자료인『奉系軍閥檔案資料彙編』이다. 遼寧省檔案館에서 편찬하여 1990년 江蘇古籍出版社와 香港地平線出版社에서 함께 12권으로 출판한『奉系軍閥檔案資料彙編』에는 1895년 1월부터 1933년 4월까지 동북군벌인 봉계군벌의 탄생에서 쇠락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당안 7931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는 봉계군벌의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당안자료와 일본의 동북침략과 관련된 당안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2002년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 동북공정의 주요한 과제의 일환으로 동북지역의 당안에 대한 정리 출판 작업을 수행했다.[7] 그 성과로 나온 것인 238책의『琿春副都統衙門檔』(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과 151책의『東北邊疆檔案選輯(清代 民國)』(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이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과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공동으로 편찬한『琿春副都統衙門檔』은 1737년부터 1909년까지 약 170년에 걸친 문서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의화단사건 때 중국 동북지역을 침공했던 러시아군이 가져갔던 것을 1950년대 반환하여 제1 역사당안관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자료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안관에 보관된 것이다. 초기 자료는 만문위주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한문기록이 많아진다. 훈춘지역은 동남으로는 러시아, 서남으로는 조선과 접경하고 있는 군사요충지로 이 자료는 훈춘부도통 관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여러 방면에 걸친 1차 자료이다. 또한 훈춘부도통은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조청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東北邊疆檔案選輯』은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과 遼寧省檔案館, 吉林省檔案館, 黑龍江省檔案館이 공동으로 편찬한 당안자료집이다. 1~84권까지 84책은 변강사지연구중심과 요녕성당안관이 공동으로 편찬하였으며, 85권부

7) 동북공정의 과제지남에 따르면 과제는 연구부분과 당안 문헌의 정리와 번역 부분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課題指南(2003年 3月 20日 修訂)」).

터 121권까지 37책은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길림성당안관이 편찬하고, 122권부터 151권까지 30권은 변강사지연구중심과 흑룡강성당안관에서 편찬했다. 요녕성 부분은 邊務, 외교, 조선 이민, 조선과의 무역 부분인 安東 무역, 旗人 생계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하고 있으며, 길림성 부분은 변무(邊務), 개발, 외교로 분류하고 있으며, 흑룡강성 부분은 주제별 분류 없이 시기별로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중국의 동북지역연구뿐만 아니라 조선과 청조의 외교와 경제 교류 등과 조선이민문제 등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黑龍江大學出版社에서는 2008년부터 黑龍江將軍衙門檔을 한문으로 편역하여 『滿文檔案文獻整理集成』으로 출간하고 있다. 黑龍江將軍衙門檔은 1684년부터 1907년까지 모두 4만 3천 책인데, 그 중 만문당안이 2만 2천 책 120만여 건이다. 『滿文檔案文獻整理集成』에서는 주로 강희, 옹정, 건륭시기의 만문 당안을 정리 편역 출판하고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출판사에서는 길림성 당안관의 청대당안을 정리한 『吉林省檔案館藏清代檔案史料選編』(68책)을 2012년에 출판하였다.

동북지역의 당안은 중국의 동북지방과 중국의 변강지역의 민족사에 대한 연구 등 중국사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중관계사와 우리 민족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 등 우리 민족사의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만문 당안들은 동북지역이나 한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북지역의 당안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 3. 사서와 지방지 및 총서류

동북 지역에 관한 다른 자료로는 전통 역사서나 지방지, 변경 지역에 대한 방어나 관리 및 국경 교섭 등과 그와 관련한 조사자료 등이 있다. 동북

www.kci.go.kr

지역이 변경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역사서에서는 대체로 동북지역의 민족과 국가를 전통적인 대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번속(蕃屬)관계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명대 이후 동북지역에 대한 지방지가 편찬되기 시작되었는데, 가정(嘉靖) 연간의 『遼東志』와 『全遼志』가 동북지역에 대한 최초의 지방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였다. 1930년대 편찬된 『遼海叢書』 이후 동북지역에 대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 변강에 대한 연구와 자료 편찬 작업이 시작되고,[8] 동북공정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변강'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변경 지역에 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영인 출판하면서 동북지역에 대한 많은 자료의 정리와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지역에 관한 자료집으로 최초로 정리된 것은 앞서 언급한 『遼海叢書』이다. 1920년대부터 金毓紱의 주도로 편찬하여 1932~35년간 출간된 『遼海叢書』는 정집(正集)과 부집(附集)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집은 다시 10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북지방에 대한 문사자료 83종 380책을 포함하며, 속집은 43종 5집으로 구성되어 있다.[9] 『遼海叢書』는 동북지방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지만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변강연구의 일환으로 자료에 대한 정리와 출판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자료집은 주로 우리에게는 동북공정의 주관기관으로 잘 알려진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중심이 되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편찬했다. 중국에서 『中國邊疆研究資料文庫』 시리즈로 출판되고 있는 변강지역에 대한 자료집들과 홍콩의 蝠池書院에서 출판하는 변강사료문헌들 및 국가도서관에서 정리출간하고 있는 변강관련 자료집들이 그

8)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도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編, 1988~1993, 『清代邊疆史志資料叢刊』(全國圖書館縮微復制中心)을 편집 출판하였는데, 동북권으로 『光緒朝黑龍江將軍奏稿』(1993)가 있다.

9) 『遼海叢書』 정집 10집의 전체 목록과 전문의 내용은 모두 중국의 공개 고전 데이터베이스 國學導航의 홈페이지(http://www.guoxue123.cn/other/lhcs/lhcs/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1987년 新書苑에서 20책으로 영인하였다.

www.kci.go.kr

것이다. 이러한 자료집들은 정사는 물론 관방의 문건이나 당안자료, 외교회담자료, 조사자료, 당사자들의 문집이나 일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 자료집 중 가장 방대한 자료집은『中國邊疆研究資料文庫』인데, 그것은 다시『邊疆邊務資料文獻初編』,『海疆文獻初編』,『邊疆行政建制初編』,『邊疆史志文獻初編』,『邊疆方志文獻初編』,『邊疆民族舊刊輯錄初編』,『邊疆民族資料初編』 등의 시리즈로 나누어진다. 변강변무자료는 변계업무에 관한 자료집이다. 해강문헌은 동북지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중국 근해의 형세, 도서(島嶼)와 항구, 해상교통, 수군과 해군 건설, 중국과 오키나와 및 동남아 지역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행정건제자료는 변강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구역과 기구의 건설과 연혁에 관한 자료이다. 사지문헌에는 조사보고 필기 자료, 여행기 등이 포함되며, 방지문헌은 관련 지방지이며, 민족구간은 주로 청말과 민국시기에 발간된 관보와 잡지를 수록하고 있으며, 민족자료는 변방 민족의 분포와 성쇠에 대한 자료로 정사 외에도 별사나, 조사보고, 문집 등을 포함한다.

『邊疆邊務資料文獻初編』에는 전체 시리즈의 서론에 해당하는 주로 민국시대의 변강문제에 대한 논저를 수록한『中國邊疆概述』(6책)을 위시하여,『東北及北疆邊務』(12책),『西南邊務』(21책),『西北邊務』(12책)을 포함하는데 모두 2011년 中央編譯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海疆文獻初編』에는『沿海形勢及海防(1輯)』(17책),『沿海形勢及海防(2輯)』(19책),『沿海形勢及海防(3輯)』(25책)으로 2011년 知識產權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邊疆行政建制初編』은『綜合』(24책),『東北及北方』(14책),『西北及西南』(23책)으로 역시 知識產權出版社에서 2011년 출판되었다.『邊疆史志文獻初編』은『東北邊疆(1輯)』(29책),『東北邊疆(2輯)』(24책),『北部邊疆(1輯)』(17책),『北部邊疆(2輯)』(14책),『北部邊疆(3輯)』(13책),『西北邊疆(1輯)』(25책),『西北邊疆(2輯)』(21책),『西南邊疆(1輯)』(19책),『西南邊疆(2輯)』(19책),『西南邊疆(3輯)』(33책)이 中央編譯出版社에서 2011년 출판되었다.『邊疆方志文獻初編』에는『東北及北部邊疆』(22책),『西北邊疆』(17책),『西南邊疆』(28책)으로 知識產權出版社에서 2011년 출판되었다.『邊疆民族資料初編』

www.kci.go.kr

에는 『綜合』(11책), 『東北及北方民族』(15책), 『西北及西南民族』(22책)이 있으며, 『邊疆民族地區舊刊輯錄』에는 『綜合』(9책), 『東北及北方』(21책), 『西北及西南』(32책)이 있는데, 이 두 자료집도 모두 知識產權出版社에서 2011년 출판되었다.[10]

홍콩의 蝠池書院에서도 변강과 관련한 많은 자료집이 출판되었는데, 『中國邊境史料通編(秦-淸)』(50책)이 2008년이 출간되었고 속편과 3편도 각각 2009년과 2012년 출간되었다. 『中國邊境史料通編(秦-淸)』은 말 그대로 진대부터 청대까지의 변강에 대한 사료를 포괄하고 있는데, 25사의 변강관련부분, 변강과 관련된 문집의 절록 등을 포함한다. 통편에는 동북관련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동북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따로 편집하고 있다. 蝠池書院에서는 그 외에도 『近現代中國邊疆界務資料』 1-3편, 『中國邊疆行紀調查記報告書等邊務資料叢編』 초편(50책)과 2편(20책)도 영인하였다. 그런데 이 책들의 대부분은 편집인을 출판사로 하거나 本書編委會 명의로 하는데 비하여 『中國邊疆行紀調查記報告書等邊務資料叢編』 초편의 경우 中國邊疆史志研究中心을 의미하는 邊丁으로 밝히고 있으며, 통편의 서문에서도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인사가 편집에 참여한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들 자료집이 동북공정 또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변강 연구의 일환으로 편집된 것이거나 최소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國家圖書館分館에서는 50권의 『淸代邊疆史料抄稿本彙編』(線裝書局, 2003)을 펴냈다. 그 중 1-8권이 동북지역에 관한 권이다. 초고본은 필사본과 원본자료를 의미하는데, 이 자료집은 국가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있는 변강에 대한 초고본 자료를 편집한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가 國家圖書館分館으로 되어 있지만 서문을 馬大正이 쓴 것으로 보아, 자료에 대한 편찬 작업이 동북공정에 선행하는 변강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지에 대한 영인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북지방에 대한 지

10) 수록된 자료의 목록은 동북관련만도 방대한데, 중문 google에서 해당 시리즈를 검색하면 상당수의 시리즈에 대하여는 세부목록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www.kci.go.kr

방지는『中國邊疆史志集成』의『東北史志』로 출간되었다.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에서 2004년 영인하여 출판한『東北史志』는 1부 15책, 2부 18책, 3부 15책, 4부 15책, 5부 18책 등 총 8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東北史志』에는『遼東志』,『全遼志』와『盛京通志』,『奉天通志』,『吉林通志』등 방대한 동북에 대한 지방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찍이 1991년부터 1949년 이전의 구 지방지를 각 성별로 집대성하여 출간하였는데, 동북지방의 지방지인『遼寧府縣志輯』(23책),『吉林府縣志輯(10책),『黑龍江府縣志輯』(10책)은 각각 2006년에 南京의 鳳凰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 4. 만철자료와 만주국 관련 자료[11)]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약칭인 만철(滿鐵)은 러일전쟁 후인 1906년 수립되어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해체된다. 만철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일본의 중국침략을 위하여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조사 작업을 실시하여 방대한 자료를 남겼다. 만철자료는 일본이나 국내에도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중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철이 남긴 만철 자료에 대하여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리 출판되고 있다.

만철자료는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목록집을 통해야 한다. 만철자료에 대한 목록집은 먼저 일본에서 정리되기 시작

11) 만철과 만주국 관련 자료는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井村哲郎, 2008,「滿洲國關係史料の現狀と課題」『만주연구』8집; 李力, 2008,「在中國學術界對僞滿洲國的研究動態和現存的僞滿資料」『만주연구』8집; 李相哲, 2008,『資料で辿る滿洲研究: 新聞資料を中心に」『만주연구』8집 등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만철자료에 대한 연구 현황은 武向平, 2009,「三十年來我國滿鐵研究現況述評」『日本問題研究』2009年 2期; 郭洪茂, 2011,「中國的滿鐵研究現狀」『滿鐵研究』2011年 1期 참조.

www.kci.go.kr

했다.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도서관 자료실(アジア經濟研究所圖書館資料部)에서 편찬한『舊植民地關係機關刊行物綜合目錄: 滿洲國 關東州編』(アジア經濟研究所, 1975);『舊植民地關係機關刊行物綜合目錄: 南滿洲鐵道株式會社編』(アジア經濟研究所, 1979);『舊植民地關係機關刊行物綜合目錄: 滿洲國 關東州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索引編』(アジア經濟研究所, 1981) 등의 목록집과 색인집이 그것이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만철자료에 대한 조사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국내에 각지에 소장되어 있는 만철자료 22만 건의 목록을 집대성하여 30권의『中國館藏滿鐵資料聯合目錄』(東方出版中心, 2007)을 출판했다. 그 전에도『吉林省社會科學院滿鐵資料館藏資料目錄』;『滿鐵調查部期刊載文目錄』;『滿鐵調查部報告目錄』등이 출판되었다. 吉林省社會科學院滿鐵資料館 編,『吉林省社會科學院滿鐵資料館藏資料目錄』(3권)(1권, 吉林文史出版社, 1995; 2-3권, 吉林人民出版社, 2003)에는 소장 자료 약 2만 8천여 책에 대한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영문을 비롯한 서양어로 된 자료 1500여 책을 포함한다. 高書全, 宋玉印, 房慧茹 主編의『滿鐵調查部期刊載文目錄』(3책)(吉林文史出版社, 2004)에는 현존하는 잡지 중에서 67종을 선택하여 4만 여 편 목록 수록하였으며, 馬萬里, 陶統秀 主編의『滿鐵調查部報告目錄』(2책)(吉林人民出版社, 2005)에는 12790편의 만철 조사부의 보고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만철 자료에 대한 정리와 영인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8년『滿鐵調查月報』48권이 영인된 적이 있다. 중국에서 만철자료에 대한 연구와 정리 작업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출판되지 못했다. 1970년대 8권의『滿鐵史資料』편집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 2권(『路權篇』)과 4권(『煤炭篇』)이 각각 1979년과 1987년에야 中華書局에서 공개 출판되었다.[12] 1990년대에는 만철자료에 대한 편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遼寧省檔案館과 遼寧省社會科學院이 편역한『滿鐵檔案選譯: 9.18前

12) 武向平, 앞의 논문, 58~59쪽.

www.kci.go.kr

後的日本和中國東北』이 대표적이다[13].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만철 자료에 대한 영인 출판이 이루어지는데, 遼寧省檔案館에서 정리 출판한 『滿鐵與侵華日軍』(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滿鐵與移民』(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滿鐵與勞工』(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滿鐵機構』(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과 黑龍江省檔案館과 遼寧省檔案館에서 편찬한 『滿鐵調查報告』가 있다. 『滿鐵調查報告』 1, 2집은 각각이 2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黑龍江省檔案館에서 편찬하여 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 2005년 출판하였다. 그리고 遼寧省檔案館에서 편찬 출판하고 있는 3-8집(각 25책)은 현재 6집까지 간행되었다.

그 외 만철은 부속지의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 등을 출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와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들 자료를 광의의 만철자료라고 한다.[14] 부속지에서 출판된 신문으로는 『滿洲日日新聞』, 『奉天日日新聞』, 『哈爾濱日日新聞』과 중문의 『盛京時報』, 영문의 *Manchuria Daily News* 등이 있다. 그 중 1906년 선양(沈陽)에서 창간되어 1944년까지 주로 동북지역에서 발행된 『盛京時報』는 동북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1985년 141권으로 영인되었다.[15] 그 외에도 『協和』; 『開拓青年』; 『滿洲畵報』 등과 같은 잡지도 발행되었다.

일본은 패망 직전 만주국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만주국 정부나 국책 회사 및 관동군과 관련된 문서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은 만주국 당시의 출판물 또는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은 내부자료 등과 미처 파기하지 못한 일부 자료가 있다. 石麗珍, 王志民 主編, 『僞滿洲國史料』(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2)은 주로 吉林省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국 관련 자료를 모아 정치(3책), 경제(8책), 사회(5책), 문교(5책), 사지(史志)(2책) 등 5편과 부편 민국시기의 일본의 중국 침략과 식민지 정권 창출 시도 자료(10책) 등 모두 3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13) 위 논문, 59쪽.
14) 徐曉紅, 2011, 「淺析滿鐵資料的界定」『滿鐵研究』 2011年 1期, 17~18쪽.
15) 신문자료에 대하여는 李相哲의 앞의 글 참조.

www.kci.go.kr

이에 비하여 吉林省檔案館에서 편찬한『日本關東憲兵隊報告集』(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은 미처 파기하지 못한 관동군 헌병대의 자료이다. 관동헌병대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5년 동북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하여 만철지역에 분대가 설치되었으며 1932년 관동군에 편입되어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관동헌병대는 성립 이후부터「일본 교민 보호와 일본 권익 보호」의 미명하에 각종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각종 월보, 반월보, 순보, 일보 등으로 수집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日本關東憲兵隊報告集』은 일본 패망 직전 헌병대가 자료를 파기하려고 하였으나 소련군의 신속한 진입으로 파기하지 못하고 지하에 묻었던 자료를 발굴하여 1982년 길림성 당안관으로 이관하여 보관 중인 것을 정리하여 영인한 것이다.『日本關東憲兵隊報告集』은 1집(18책), 2집(19책), 3집(24책) 4집(23책) 등 총 8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집은 각 지역의 사상(반)월보, 사상대책월보 등 사상 관련 보고로 구성되어 있고, 2집은 각 지역의 군기풍기월보(軍紀風紀月報), 방첩월보, 주보 등 치안이나 방첩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3집과 4집은 통신이나 우편 검열 월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중국침략이나 중국의 항전뿐만 아니라 중국 근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만주가 우리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관동헌병대가 조선 독립군을 진압하는 주요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과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5. 조사보고와 기행 자료 및 기타

동북을 포함함 변강지역은 중국의 내지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주로 청대이후 중국인들의 여행기나 조사보고 등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근대시기 이후에는 일본인이나 서구인 등 외국인 외교관, 기자, 선교사 등

www.kci.go.kr

의 여행기와 조사보고도 남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풍속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한 조사보고나 여행기는 변강지역의 지리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무자료나 사지자료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한문 또는 중국어로 된 여행기와 조사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 앞에서 소개한 홍콩 蝠池書院出版有限公司에서 영인한『中國邊疆行紀調查記報告書等邊務資料叢編』초편(50책)과 2편(20책)이다. 자료집은 필자들이 직접 경험한 조사기 여행기 보고서 등과 정부 각급 관원들의 변강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 건의, 계획 등 두 범주로 구성된다. 2009년에 간행된 초편은 200여 종의 문헌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에 간행된 2편은 170여 종의 문헌을 포함한다. 초편이 주로 청대를 중심으로 근현대시기의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면, 2편에는 송대 등 고대의 자료도 포함한다. 주로 중국인들의 기록이지만 일본인이나 러시아인의 여행기의 중역본도 포함되어 있다. 주로 몽고나 신강지역에 대한 자료가 많지만 일부 동북지역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초편의 14, 15, 16, 21 권이 동북지역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2편의 1-3권도 동북 관련 내용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일본인과 서구인들의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보고나 여행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개발되기 이전의 동북의 상황을 다른 시야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자료들은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나 서구의 대학도서관 등 도서관과 문서보관서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자료에는 일본어와 중국어 자료가 다수를 차지이지만 영문 자료도 상당수가 남아 있다. 영문 자료는 서구의 외교관, 기자, 선교사나 여행객의 여행기와 더불어 미국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만철, 조선은행 등에서 만주지역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 영문으로 출판한 자료도 다수가 있다.[16] 그 외 영국의 아카이

www.kci.go.kr

브(The National Archives)에는 1930년대 만주국 수립을 전후하여 도쿄의 주일 영국대사관에서 만주지역에 대하여 보고한 다수의 자료가 있다.[17]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는 점에서 3자적 관점 또는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서구인의 관점에서 동북지방에 대한 이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구인들의 동북지방에 대한 여행기나 보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도 당시의 동북지방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행한 만주에 대한 자료 목록집에는 모두 843종의 목록을 종합, 환경, 정치사와 정부, 경제, 사회상황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데, 일문이나 중문이 다수이지만 영문이나 기타 구미어 자료도 상당수를 차지한다.[18] 그 중에서 22종의 만주지역에 대한 기술과 여행기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시 미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한 일문으로 된 만주지역에 대한 여행기와 개설적 소개서가 700 여 책에 이른다고 한다.[19]

---

16) 몇 가지 예를 들면, Alexander Williamson, 1870, *Journeys in North China, Manchuria, and Eastern Mongolia with Some Account of Corea* London: Smith, Elder & Co; Rev. J. Miller Graham, 1902, *East of the Barrier or Side Lights on the Manchuria Mission*, London: Oliphant Anderson & Ferrier; Lord Brooke, 1905, *An Eye-Witness in Manchuria,* London: Eveleigh Nash, Henry Evan M. James, 1888, The Long White Mountai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Adachi Kinnosuke, 1925, *Manchuria: A Survey*, New York: Robert M. McBridge & Company;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1933, *Manchukuo: The Founding of the New State in Manchuria*, New York: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Alexander Hosie, 1904, *Manchuria: Its People, Resources and Recent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1922, *Manchuria, Land of Opportunities*, New York: South Manchuria Railway; Bank of Chosun, 1918, *Economic Outline of Chosun and Manchuria*, Seoul: Chosun; Bank of Chosen, 1921, *Economic History of Manchuria*, Seoul: Chosen 등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영문 자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17) 몇 가지 예를 들면, The British Embassy, Tokyo, 1930, "Manchuria General Situation," File No. 29/1930, The National Archives FO262/1752; The British Embassy, Tokyo, 1933, "Manchuria," File No. 37/1933, The National Archives FO262/1830; The British Embassy, Tokyo, 1934, "Claims for Manchuria," File No. 47/1934, The National Archives FO262/2006; The British Embassy, Tokyo, 1935, "Communism Manchuria" File No. 228/1935, The National Archives FO262/1918; The British Embassy, Tokyo, 1935, "Manchuria Administration" File No. 156/1935 The National Archives FO262/1909 등이 있다.

18) Peter A. Berton, 1951, *Manchuria: An Annotated Bibliography*, Washington: The Library.

19) Ibid, 48~52쪽.

www.kci.go.kr

그 외에도 변강자료나 동북지역자료는 아니지만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자료집들에도 동북지역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집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인 2007년에 성립된 국가도서관민국문헌자료편찬출판위원회에서 편찬 출판하는 民國文獻資料叢編이다. 民國文獻資料叢編 중 殷夢霞, 田奇 選編,『民國人口戶籍史料彙編』(國家圖書館出版社, 2009)에는 길림과 만주제국의 인구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殷夢霞 李强 選編,『民國鐵路沿線經濟調查報告彙編』(國家圖書館出版社, 2009)의 1-4책이 베이징과 봉천간의 北寧鐵路, 吉林과 敦化간의 吉敦鐵路 연선에 대한 조사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국문헌자료총편의 다른 자료집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신문과 잡지가 있는데, 만철 신문은 만철자료 부분에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동북지역에서 발간된 잡지와 관보가 中國邊疆研究資料文庫의『邊疆民族舊刊輯錄初編』의『東北及北部邊疆』과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에서 2006년 펴낸『清末官報彙編』(76책)에 포함되어 있다. 후자에는『吉林官報(1909年 1期~1910年 22期)』와『吉林教育官報(1908年 1期-1908年 18期)』가 수록되어 있으며, 구간집록에는 위 두 관보 외에 민국시기 遼寧省 教育廳編譯處에서 編印한『東北叢刊』, 國立東北大學에서 編印한『東北集刊』을 수록하고 있다.

## 6.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에서 동북지방에 대한 연구 자료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에서 동북지방 연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변강연구자료 일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과 더불어 동북지역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북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中國邊疆史地研究資料數據庫가 대표적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www.kci.go.kr

는 다시 邊疆民族資料數據庫, 邊疆界務資料數據庫, 邊疆行政建制資料數據庫, 邊疆民族地區期刊資料數據庫, 中國邊疆方志資料數據庫, 東北邊疆史地文獻數據庫, 北部邊疆史地文獻數據庫, 西北邊疆史地文獻數據庫, 西南邊疆史地文獻數據庫, 海疆史地文獻數據庫 등 10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료는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정리하여 영인 출판한 자료와 중복되는데, 당안이나 변강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국변강 연구를 위한 가장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데이터베이스에서 동북변강사지문헌수거고는 동북에 관한 문헌자료이며, 민족이나 변무, 건제, 민족지역 잡지, 변강방지 등에서도 동북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창춘(長春)시 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만주국시기 동북과 만주몽고지방의 문헌 자료 3000여 종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그것이 東北地方文獻索引全文數據庫와 東北地方文獻索引數據庫 및 僞滿十四年資源庫이다.

최근에는 구미에서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Adam Matthew Digital (http://www.amdigital.co.uk/)과 HathiTrust Digital Library(http://www.hathitrust.org/)이다. SAGE에서 운영하는 Adam Matthew Digital은 세계 각국의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중국관련 데이터베이스로는 1)코넬 대학의 19세기와 20세기 초 중국관련 자료인 Wason Pamphlet Collection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중국 사회와 문화(China: Culture and Society), 2)18세기와 19세기 북미지역과 중국과의 무역과 문화교류에 대한 1차 자료를 제공하는 중국, 미국과 태평양(China, America and the Pacific), 3)1919~1948년 1949~1980년 중국에 대한 영국 외교부 자료(Foreign Office Files for China 1919~1948 and 1949~1980), 4)그리고 SOAS와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의 자료를 제공하는 중국 무역과 정치 문화(China: Trade, Politics and Culture 1793~1980) 등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Adam Matthew Digital의 Empire Online에서는 각 대학도서관과 영국문서보관서(the National Achieve)의 자료를 모두 다섯 부분으

www.kci.go.kr

로 분류하여 제공하는데, 그 중 다섯 번째 부분인 Race, Class, Colonialism, Imperialism에는 앞서 언급한 도쿄주재 영국대사관에 보고한 만주관련 자료를 포함한 많은 중국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한 HathiTrust Digital Library도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히 19세기 또는 20세기 초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부분을 이미지 파일(pdf)로 제공한다. 만주(Manchuria)를 주제어로 검색했을 때, 1949년 이전 자료가 800건 정도 검색된다. 일본어와 중국어 자료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영문 자료도 상당수를 점한다.

## 7. 결어

중국의 동북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접경하고 있는 민족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역이다. 중국의 변강이자 접경지역으로서 동북지역은 국제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민족사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하여는 역사문제를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북지역 연구에서 가장 큰 장애는 자료문제였지만, 동북공정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본격화된 변강연구 과정에서 다량의 당안자료와 한적 자료에 대한 편찬과 공간이 이루어졌다. 동북공정은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료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동북공정은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이자 조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과 변강연구과정에서 편찬된 방대한 자료집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이 어려웠던 많은 자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www.kci.go.kr

했다. 뿐만 아니라『東北邊疆檔案選輯』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료의 수집 편찬을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정리와 분류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자료의 이용에서 불편함을 증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지 않고 망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료이용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동북지역이 가지는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편찬된 자료집들도 국내에서는 일부 자료만 수집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자료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절실하다. 기실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은 쟁점이 되는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을 포함한 변강연구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동시에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동북지역은 물론 변강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자료에 대한 수집은 문헌자료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동북이 근대적 질서 속에서 재구성되는 근대시기 동북지역에 대한 자료, 특히 전통적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서구인들의 3자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관련된 자료도 동북지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한 자료들은 구미의 각 기관이나 대학도서관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파악과 접근이 곤란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에 대한 파악과 접근도 동북연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인 동북지역 연구 문헌 목록집의 필요성이다. 이 글에서는 동북지방 관련 연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각 자료집에는 방대한 문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파악과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목록집의 편찬이 필요하다. 또한 구미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도 접근과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 목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동북지역 연구 문헌 목록집이 편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투고일 : 2014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5일

www.kci.go.kr